



한국문화교류 소식

8호 2013년6월15일 발행 발행인 이광규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121-813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251-1 근신빌딩 별관 201호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메일 hangyobon@gmail.com 홈페이지 www.ickc-seoul.net

미국 공립학교 한국어 정규과목 개설에 앞장서며...

미 공립학교 한국어 정규과목 채택운동의 기적



이선근
한국어정규과목채택추진회 사무총장

미국 공립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정규과목으로 가르치게 하자는 운동이 5년 만에 기적과 같이 놀라운 성장을 보게 되었다. 2007년 10월 20일에 뉴욕에서 설립된 '한국어정규과목채택추진회'는 2012년 8월 30일에 개최한 한국어정규과목 추진 및 한국어교사 양성 기금모금 만찬을 준비하면서 믿기 어려운 놀라운 소식을 학교 측으로부터 듣게 되었다. 2010년에 추진회가 주동이 되어 개설한 Palisades Park 고등학교 한국어반이 2년 만에 27명에서 130명으로 늘어났고 2011년에 개설한 Ridgefield Memorial 고등학교 한국어반은 1년 만에 36명에서 80명으로 늘어났으며, 또 같은 교정에 있

는 초등학교 3,4학년 학생 240명 전원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계획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한인 2세뿐만 아니라 수많은 미국학생들이 필수 외국어 과목으로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다. 내년에는 새로 3학년이 되는 학생들도 한국어를 배우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믿어지지 않는다.

8월 30일에 개최한 기금모금 만찬에서 Ridgefield Memorial 고등학교 교장 Dr. Tamika Depass 선생님한테서 들은 소식이다. 이 소식을 들은 추진회 임원들 모두는 지금까지의 고생이 헛수고가 아니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사실 Ridgefield Memorial 고등학교에 보내야 할 지원금 \$40,000과 한국어교사 양성 기금을 모금하는 것에 걱정이 태산과 같았는데 이런 기쁜 소식을 듣고 나니 어느 정도 자신감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수년간 경기침체로 인해 후원금 모금이 어려울 거라고 걱정을 했는데 천만다행으로 100명 이상의 동포들이 만찬에 참석하여 우리의 짐을 많이 덜어 주었고 \$53,000이 넘는 액수의 모금을 할 수 있었다. 특별히 이번 기금만찬에는 Bergen County 행정관이 자기 지역 안의 두 고등학교에 한국어반을 개설해 준 한인사회에 감사 표시로, 한국어반 개설에 크게 도움을 준 한

인 후원자 두 분과 5년 간 공동회장으로 수고하신 이광호 회장에게 감사장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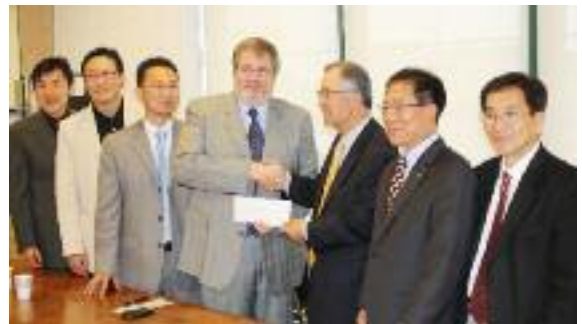
이런 기적과 같은 놀라운 미국 고등학교 한국어 정규과목 채택 운동의 성장은 추진회가 왜 탄생하게 되었는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추진회는 미국에서 한국어 세계화가 고등학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1996년에 미 대학 입학시험 외국어 과목으로 한국어가 채택되어 매년 4,000명 이상의 입시생들이 한국어를 택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한국계 학생들이다.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외국어로 가르치지 않는 이상 한국어 응시생은 한국계 학생들에게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계 학생들만 응시하는 외국어 과목이 아니라 비한국계 학생들이 응시할 때에 한국어의 세계화는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한국어정규과목채택추진회가 탄생하게 된 이유이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가까운 장래에 동북아가 전 세계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 일본, 한국 세 나라가 미국 안에서 무기 없는 문화전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1,000개 고등학교에 중국어반을, 일본은 750개 학교에 일본어반을 개설시켰다. 뒤늦게 참여한 한국도 몇 년 사이에 미국 전역에 한국어반을 개설시키는 데에 박차를 가하여, 현재 100 여개 학교에 한국어반이 개설되었다. 한국어반 개설 운동이 비록 늦게 시작됐지만 이 문화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여 어느 다른 언어 교사보다 더 잘 가르칠 때 한국어반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동포들의 지속적인 도움만 있다면 우수한 한국어교사를 양성시킬 수 있고 정규외국어 과목으로 고등학교에 한국어반을 개설시킬 수도 있다. 한국 드라마와 K-POP, 그리고 태권도 붐으로 한국에 관심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면서 한국문화를 잘 소개해 줄 수만 있다면 문화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본다. 추진회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이 모두 우수한 교사 양성을 위한 사업과 정규 한국어반 개설 사업이다. 미국정부의 교육 예산 삭감으로 새로운 학급을 만들 수 없는 처지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국어교사를 파견해 주고 2년 동안 교사 봉급(\$100,000)을 지원 해 주는 방법으로

한국어반을 개설해 왔다. 최근에 일부 학교에서 자체 예산으로 한국어반을 개설하는 좋은 소식도 듣게 되어 한국어의 세계화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현재 한국 정부는 한국어반 개설에 2년에 \$35,000만 지원해 주고 있어 나머지 \$65,000은 동포들의 지원을 받아야만 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추진회는 2008-2009년에 한국어교사 양성을 위해 \$55,000, 2010년, 뉴저지 Palisades Park 고등학교 한국어반 개설을 위해 \$65,000, 2011년, Ridgefield Memorial 고등학교 한국어반 개설을 위해 첫째 지원금 \$25,000을 포함 \$41,000, 2012년 \$53,000이 모금되었다. 지금까지 추진회가 추진해온 세 가지 사업은 오로지 동포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졌기에 이 지면을 통해 동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동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 한인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뜻 있는 선물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세계경제는 갈수록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포들의 지원은 이제 한계에 부딪치는 것 같다. 한국 국민들이나 한국 대기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사업은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도움의 기대도 미국 뉴욕, 뉴저지 주에서 일어난 한국어반 개설의 기적처럼 가능할 수 있을까? 한인 2세들이 많이 재학하고 있는 뉴저지 Bergen 카운티에는 한인 학생들이 27% 이상 재적하고 있는 학교가 9개 학교가 더 있다. 다른 여러 고등학교에서도 머지않아 한국어반이 개설될 것을 기대해 본다.



'Palisades Park High School
한국어반 개설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



‘아름다운 세계 고지도’展 및 한·일 국제문화포럼을 마치고



김혜정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장

눈길이 머무는 곳마다 봄꽃들의 진한 향기는 5월을 알리는 축포가 되어 가슴으로 날아듭니다. 쉽사리 물러서지 않고 버티던 겨울의 미련이 오히려 봄에 대한 더 큰 열망과 기다림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일본 주일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갤러리에서 ‘아름다운 세계고지도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혜정박물관이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공동 기획한 행사였습니다. 고지도의 예술성과 함께 세계 속에 등장하는 한·일 양국의 모습과 그 변화를 살펴보며, 두 나라 사이의 문화·예술적 지원 및 교류의 교두보를 마련코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시회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지도학자와 박물관 관계자를 초청하여 고지도 연구와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박물관 운영의 발전방안을 모색해보는 문화포럼도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어느 때보다도 영토와 과거사 인식의 문제로 한국과의 정치적 관계가 소원(疎遠)하던 일본에서, 이와 같은 행사를 하기에는 적잖은 어려움도 있었

습니다. 장소는 반한(反韓)시위가 계속되는 한국대사관 내에 있는 한국문화원이라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생각했던 우려와 달리 행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개막식 당일(16일)에는 신각수 주일본 대한민국대사, 다카야스레이지 일본 박물관경영협회 부회장, 엄기영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임삼호 재일본 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부단장 등 각계인사와 수많은 일본의 문화 예술인, 교민 등이 참석하여 활기를 더했습니다. 특히, 윤재옥 국회의원은 바쁜 의정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에 참석해주셨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한·일간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윤 의원의 열정에 저를 비롯하여 개막식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감동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행사를 처음 기획하면서 ‘아름다운 고지도展’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화려하게 채색된 지도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도록 한 것이지만, 이면에는 지도 속에 숨겨진 동아시아의 영토와 영해문제의 진실을 올바르게 알리고자 하는 의도에서였습니다. 특히 서양에서 제작된 고지도와 일본인이 제작한 세계지도를 전시함으로써 관람자들이 자연스럽게 관람하면서 영토와 영해의 실상을 깨닫게 하고자 했습니다.

때로는 전시회를 둘러보던 분들의 눈과 표정에서 영토와 영해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놀라는 모습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전시기간이 짧고 일반 대중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장소여서 더 많은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게 아쉬움으로 남았습

니다. 하지만 행사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전시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주신 것에서 고마움과 함께 그동안의 어려웠던 여정에 대한 위로를 받을 수 있어 행사를 주관한 사람으로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편, 개막식 당일 오후에는 ‘한·일 문화포럼’을 가졌습니다. 주제발표에 나선 오카다 요시히로 교수는 발표장에서 우리나라의 지도에 관한 새로운 주장을 하여 우리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것은 이번 행사에 전시된 <감여도(堪輿圖)>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니다. 이 지도는 1500년에 명나라 강소성(江蘇省) 구용현(句容縣)의 지현으로 있던 두반(杜槃)이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카다 교수는 조선의 성곽·산·하천·지명 등의 상세한 기록을 볼 때 두반이 단독으로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로 평가받는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1402년)의 영향을 받아 당시 조선에서 중국에 전달되었던 지리정보와 지식을 추가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 대해 오래도록 연구를 한 오카다

교수의 이와 같은 주장은 당대 우리의 지도제작기술이 중국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려주는 증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포럼을 통해 확인하게 된 것은 이번 행사에서 얻은 과외의 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10년 몽골에서 가졌던 전시회에 이어 국내에서 소장하고 있는 귀한 고지도를 해외에 소개하는 특별전시회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을 비롯하여 동북아역사재단,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 등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한·일 양국이 서로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향후 혜정박물관은 일본, 중국, 대만과의 고지도 관련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학술협력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행사처럼 해외 전시회도 지속적으로 준비하여 세계 속에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박물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호응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계 고지도’ 전 개막식 장면



뿌리 깊은 나무로 성장할 한국문화를 위해



레지나 임
코리아 태권도 대표

‘코리아 태권도 레지나 임 대표! 1.5세 교포로서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미국에서 가장 큰 공립학교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는 뉴욕시에 태권도를 최초로 정규과목으로 채택 시킴.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권도를 뉴욕시 공립학교 안으로 갖고 들어가 당당히 미국인들의 교육커리큘럼으로 발전시킨 장본인!’

이것이 여러 신문지상이나 언론을 통해서 소개되어진 저에 관한 정보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저의 외부적인 정보들만 보시고는 저를 마치 독립투사처럼 보시기도 하고 대단한 애국심을 가지고 근엄하게 이 일을 시작한 사람으로 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뒷면에 저만 알고 있는 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15살 나이-개인적으로 가장 어정쩡한 시기라고 생각하는-에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영어가 안 되는 부모님 밑에서 저는 부유한 나라 미국 안에서 가난한 소녀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고등학교부터 시작한 아르바이트는 이 낯선 땅에서 넘어야 할 것이 언어와 문화 외,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보여 주었습니다. 대학 4년을 등록금과 가족들의 생활비를 벌

기 위해 휴학과 재등록을 반복하며 7년이라는 시간을 써야 했습니다. 16살부터 단 하루의 쉽도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와 일을 병행해야 했던 제게 ‘노력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은 쉽게 공감가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저런 회사를 차려보기도 했지만 사기를 당하고 망하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 끝에 그래도 나를 주저앉지 않게 만든 것이 ‘태권도’였습니다. 저는 선수 출신도 아니고 대학에서 태권도를 전공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힘든 시절, 태권도를 배우며 나를 세우며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내게 태권도는 부모이고 형제이고 친구이자 내 자신입니다. 저는 회사를 차리고 싶었습니다. 늘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할 돈이 숙제였던 제가 차린 회사가 코리아 태권도 (Korea Taekwondo)입니다. ‘왜 태권도였는가?’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한국문화를 사랑했고 한국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태권도를 하게 된 이유는 ‘배고팠기’ 때문입니다. 나와 식구들의 생명에 대한 간절함의 시작이었습니다.

코리아 태권도를 경영한지 벌써 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문화를 알아서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한국문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싫었던, 가난했던 내 어린 시절의 모습이 녹아 있는 것 같은 한인 밀집지역인 플러싱 (Flushing)이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자랑스러워지고 저는 ‘대한민국’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연애 5년차입니다. 연애 5년차 정도의 연인이 그러하듯이 저도 저 애인의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애인 스스로가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고 답답해집니다. 요즘 뉴욕에서는 한국어가 공립학교의 정식과목으로 채택이 되고 학교에서 태권도를 가르

치고 국악 특별강좌가 열린다는 기사를 많이 접합니다. 한국 방송국 기자들이 맨해튼까지 직접 나와 다큐를 제작하고 모 유명 연예인이 한국어를 배우는 학교의 학생들(non-Korean)이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갖도록 돕고 또 한국 TV에 스페셜 프로그램으로 방송이 되고 하는 것을 봅니다.

4년 전, 태권도를 미국 뉴욕 공립학교에 처음 도입시켰을 때 저는 환호했습니다. “이야~! 이제야 먹고 살 길이 보이는구나!” 세세한 시행착오까지 겪어가며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정착될 즈음, 제 주위가 보이고 제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학생들이 있는 학교에는 아예 접근조차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상하게 한인들 사이에 퍼져 있는 태권도에 대한 경시 풍조... ‘우리 아빠도 태권도 1단인데...’ 어른들 사이에는 ‘사범’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낮기에 미국의 한인 밀집지역 태권도 도장에서는 ‘사범님’이란 호칭 대신 ‘선생님’이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어는 많이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한국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고 한류에 대한 바람이 불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 한국어를 각 학교에서 왜 배워야 하냐는 것이 일반적 인식입니다. 어차피 1.5세대들은 어느 정도는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한국어를 할 수 있고 2세 3세대들은 잘해봐야 겨우 본전이고 못하면 욱먹는 내 ‘부모나라’ 언어를 굳이 왜 힘들게 배우냐는 것이 이곳 실상입니다. 1.5세와 2세 3세대에게 대한민국이란 내 친구의 남자친구 정도입니다. 내 친구의 친구이다 보니 같이 어울리게 되고 친구의 남자친구에게 가끔 흔들리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내 남자친구로는 절대로 만들고 싶지 않으며 내 친구가 헤어지면 나랑 불일이 없는 대상입니다. 요즘 뉴욕을 위시하여 여러 주에서 한국어가 얼마나 많이 가르쳐지고 태권도가 넓게 보급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겠나 물으시면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직접 1.5세, 2세 한국어 선생님, 태권도 사범, 그리고 국악 교사들을 보신 적이 있냐고...

내가 만난 한국어 선생님들 중 많은 분들이 1세이신데, 각 개인별로 다른 때 다른 나이에 유학을 와 열심히 공부해서 이중언어, 수학 혹은 과학으로 교사 자격증을

취득 후 한국어 수업까지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태권도는? 국악은? 모두 1세 어른들이십니다. 그분들 역시 당신들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나가시며 이 땅에 한국 문화의 조각들을 갖다 놓으셨습니다. 지금은 모두 한국문화의 자랑스러운 전달자들이시지만, 사실 그 출발은 대다수가 배고픔이었고, 설움이었습니다. 그 배고픔과 가난과 설움의 끝자락에서 당신들을 잡고 있는 한국어 한국의 태권도가 한국의 국악이 그들의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10년 뒤 20년 뒤 이 땅에서 한국어는 누가 가르치고 있을까요? 태권도는? 국악은?

얼마 전 자신의 아들에게 뉴욕에서 우리의 국악을 10년 동안 배우게 한 어느 한글학교 선생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비한국계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는 하는 현상은 내게도 정말 고무적으로 느껴져요. 그러나 그들에게 한국문화는 신기함을 갖고 배울 수 있는 ‘재미’라고 생각해요. 이들이 끝까지 우리 언어, 우리 문화를 지켜주고 이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DNA를 갖고 있는 한국계 학생들은 자기 부모나라의 말을 싫든 좋든 의무적으로 배워야 하고 가끔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고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고 칭찬과 주목과 카메라의 플래시가 없어도 몇 년을 토요일 이른 아침부터 줄린 눈 비비며 한국을 공부해내는 이 아이들에게, 10년 동안 자신의 개인 생활은 버리고 손이 다 까져서 피가 흘러도 북채를 놓을 수 없었던 이 아이들에게 우리문화는 ‘눈물’이에요. 버릴 수 없으니까요. 10년 뒤 20년 뒤 100년 뒤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게 해야 할 책임이니까요...”

국외에서 태권도를 비롯한 한국의 문화가 뿌리 깊은 나무로 성장하려면 1세대에 이어 2, 3세대에도 계속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이를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외동포 학생들이 스스로의 뿌리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박수를 보내는 일과 함께, 1세대들과 같은 전문성을 갖게 하는 교육이 병행될 때 한국문화의 세계화는 더욱 굳건하고 풍성한 나무로 성장할 것입니다.



■ ICKC 총회 및 창립 2주년 기념 강연회 개최

ICKC 총회 및 창립 2주년 기념 강연회가 3월 27일(화), 한국방송통신대학 역사관 2층 세미나실에서 ICKC 회원 및 관계자 150 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강연회는 ‘세종대왕 리더십’ (신봉승, 극작가), ‘태권도, 제 2의 도약을 위하여’ (송중국, 경희대 교수)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태권도 세계화를 위한 방향과 방법을 모색한 송중국 교수의 강의는 태권도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대한민국 대표 극작가인 신봉승 선생 강연은 세종대왕 및 조선시대 지식인의 모습을 살펴보고, 미래 정치가의 표상과 함께 인문학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 한국사회의 진정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신봉승작가의 강연은 2시간동안 모두 몰입해서 들을 정도로 청중을 사로잡았으며, 이후 여러 기관에서 강의요청이 오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 미공립학교 한국어반에 한복 후원

(주)홍진플러스 예담한복(대표 주민수)은 5년째 국외 한글학교 학생들에게 매년 한복 100벌씩을 후원해 왔다. 올해는 미국 공립학교 한국어 반 학생을 위해 한복을 32벌을 후원,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가 운송비를 부담하여 미 공립학교 한국어반에 전달되었다. 한복을 제공받은 학교는 뉴욕 데모크라시 프렙스쿨, 뉴저지 팰리사이드팍 하이스쿨, 시카고 루즈벨트 하이스쿨이다. 한복을 받은 학교에서 감사 편지와 함께 한복을 입은 사진을 보내왔다.



■ 전미주태권도교육재단과 업무협조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와 미국 보스톤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전미주태권도교육재단(US TAEKWONDO EDUCATION FOUNDATION, 이사장 김경원)은 앞으로 미국 공립학교 내 태권도 정규과목 개설 업무를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하였다. USTEF는 미국 공립학교에 태권도를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단체로 매년 태권도 대회 및 타임스퀘어에서 태권도 시범 행사를 하고 있다.

■ 4월·5월·6월 ICKC 문화탐방 프로그램 진행

4월 문화탐방: 4월 9일(화), ‘인왕산과 옥류동천’
 5월 문화탐방: 5월 14일(화), ‘보토현과 성북동천’
 6월 문화탐방: 6월 11일(화), 마리소리골

45명의 회원이 국악 공연 관람, 사물놀이 체험, 자연건강식 등 우리 문화, 자연과 함께 한 치유의 시간이었다.



📰 기사로 보는 한국어·태권도 소식 📰

[한국어]



뉴욕 공립학교 한국어반 운영, 교장들 협력 정규과목 채택해 가르치는 학교 네트워킹 추진

한국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뉴욕시 학교 교장들의 연합이 추진되고 있다. 3년째 한국어와 태권도 프로그램을 가르치고 있는 퀸즈 자메이카 MS8의 안젤라 그린 교장은 5일 "현재 한국어를 정교 과목으로 채택해 가르치고 있는 교장들과 네트워킹 연합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여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이 연합은 각 학교 교장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한국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그들만의 노하우와 좋았던 점, 문제점 등을 서로 교류하고 논의하는 모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 결성은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해당 학교 교사들과 직접 만나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플러싱의 JHS189중학교, 동서국제학교, MS8중학교, IS25 중학교, 맨해튼 할렘의 데모크러시 프랩 차터 스쿨 등지에서 한국어를 정규과목으로 채택해 가르치고 있다.

[출처] 뉴욕 중앙일보 2013. 6. 10.

[태권도]



맨해튼 한복판서 태권도 축제 국악에 맞춰 격파시범 등 선배 관광객 눈길 끌어 ...

맨해튼 한복판에서 태권도 및 한식 축제가 열려 뉴욕 시민과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전미태권도교육재단(이사장 김정원)이 7일 타임스스퀘어에서 개최한 '2013 뉴욕 태권도 페스티벌'에서 어린 학생들로 구성된 450여명의 시범단이 비가 세차게 내리는 가운데서도 차례로 나와 품새와 격파 시범을 보이며 박수갈채를 받았다.



미동부한식세계화추진위원회도 전통음식 도시락 400여개를 준비해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한식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이날 행사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태권도, 한식 최고를 힘차게 외쳤다.

[출처] 뉴욕 한국일보 2013. 6. 8.

후원 회비 보내주실 곳

신한은행 100-027-567461 예금주: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국민은행 068801-04-248856 예금주: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